

# 의료대란 6일째...진료·수술 차질 '한계 상황' 임박

### 광주·전남 대학병원 응급실 수용 불가 2차 병원이 더 혼잡 전공의들 사직 이어 의대생·전임의들 임용 포기도 잇따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광주·전남지역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행동이 6일째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의료현장 곳곳에서 의료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남대, 조선대병원은 수술과 진료 일정을 지속해서 축소하면서 남아있는 인력으로 간신히 '버티는' 중이다. 이들 병원이 응급실 수용인원을 줄이면 2차 병원을 찾아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또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더해 의대생들과 전임의들까지 임용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건 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고 보건부에 검사를 배치해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차병원에서 더 혼잡-의료대란을 맞은 첫 일요일 광주·전남 의료현장에서는 의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대란 대책으로 응급환자 이외에는 수용불가 방침을 세운 탓에 비교적 간단한 응급처치는 2차 병원 응급실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주말 외래진료가 없는 탓에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로비에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부족한 인력에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운영되는 광주·전남 상급병원 응급실에 빈 병상이 늘고 있다.

25일 호흡기가 좋지 않아 2차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92세 환자 A씨는 퇴원 후 다시 문제가 생겨 시술을 받은 2차병원으로 가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응급실이 딱 차 2차병원을 가지 못한 A씨 가족들은 구급차를 이용해 상급병원인 조선대병원 응급

실에서 처치를 받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이동했다.

A씨 가족은 "2차병원은 가득 찼는데 오히려 상급병원 응급실에 빈 침대가 넘쳐난다"며 "환자와 가족들은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 지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상급병원의 응급실이 한산해 보이지만 오히려 업무는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수술대란도 심화하고 있다. 상급병원의 마취과 전공의들이 모두 사직하면서 수술 연기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역 한 맘카페에는 "다음주에 3개월 동안 기다리던 아이 수술이 잡혀있었는데 어제 밤에 연락와서 마취과가 일을 못해 수술을 연기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아이가 혹시 수술전 감기라도 걸릴까 봐 명절에도 노심 초사했는데 연기되는게 말이 되냐"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수술전 사전검사까지 시간 쪼개서 다 받아 수술이 예정돼 있었는데 수술 2일 전 밤 10시 넘어서 취소통보를 해왔다"면서 "허무하다"는 사연도 달렸다.

◇수련 임용포기에 전임의 재임용 포기까지 이어져-전공의 수련 '임용 포기'가 이어지고 있고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전임의도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

25일 전남대병원에서 따르면 내달 인턴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101명의 의과대학 졸업생 중 95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 다음달 레지던트로 들어올 76명 중 62명의 인턴도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

조선대병원의 경우 인턴으로 들어올 졸업생 36명 전원이 임용을 포기했고 레지던트의 경우 37명의 인턴중 35명이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 의과대학 명학회관에서 지난 23일 열린 '2023학년도 제72회 히포크라테스 선서식 및 동창회 임회식'에서 의대생들이 메달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임의 재임용 포기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대병원에 현재 근무중인 전임의들이 개원과 재임용 포기 등의 사유를 밝히면서 100명 수준이었던 전임의가 절반수준인 50명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조선대병원에서는 다음달 1일 전임의 1년차 임용 예정자 14명 중 12명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2년차를 맞는 전임의 19명중 15명이 개원을 하기로 해 4명만이 병원에 남기로 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됐던 신입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까지 현장을 벗어나면 의료현장은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경대치로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표자 확대회의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체 의료계가 적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

향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도 보건외교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집단행동과 관련해 신속한 사법 처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검사를 보건복지부에 파견하는 등 연일 강수로 맞서고 있다.

진료 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복귀)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보이스포싱 수거책 실행 이유는?

### 광주지법 "범행 충분히 인식" 60대·40대 여성 징역형 선고

'보이스포싱 범칙인 줄 모르고 활동했다'고 범행을 부인한 60대와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보이스포싱 사기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선)은 사기 등으로 기소된 A(여·65)씨와 B(여·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2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다수 피해자에게 1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아 보이스포싱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채무자를

노리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포싱 집단이 지난 2022년 5월에 정보지에 게재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당과 수수료 등으로 하루 15만~30만원(기타경비 별도)을 주겠다. 현금을 수급해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정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보이스포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었으나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과거 직장생활을 한 경력이 있고 현재도 일하고 있어 일반적인 취업절차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름도 모르는 자가 제안하는 비정상적인 취업 절차, 수당 액수, 업무 지시 방법, 업무 지시 내용 등을 승낙한 점으로 미뤄 보이스포싱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들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업무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를 만날때 주치는 좀 떨어진 곳에 하라. 피해자가 혼자인지 확인하고 만나라' 등의 이례적인 지시를 따랐고, 수거한 현금을 100만원씩 단위로 여러 명에게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C업체 회사에 취직했다"고 주장하지만, 면접을 거친 바도 없고 C회사 직원을 만나거나 방문한 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보이스포싱범죄는 검거에 대비해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이스포싱 범죄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일부 피해(1730만원)가 회복된 점, A·B씨가 범죄수익금 대부분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범죄전력 드러난 전직 교장, 명예퇴직수당에 이자까지 반납

전직 교장이 퇴직하면서 명예퇴직 수당을 받았지만 범죄전력이 드러나 받은 수당에 이자까지 물어야 했다.

광주지법 민사6단독(부장판사 정지선)은 광주 시가 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난 2018년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7000여만원에 현재까지 법정이자 4000여

만원을 더해 총 1억 1200여만원을 광주시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하며 명예퇴직 수당 7000여만원을 수령했다. 퇴직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범죄경력 조회 결과, A씨가 1997년 교사 재직 시기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은 전력이 뒤늦게 드러나 명예퇴직 수당 환수절차가 진행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화물차 타이어 버스 덮쳐 사진협회 광주 지회장 등 2명 사망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의 타이어가 빠지며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 회원들이 탄 관광버스를 덮쳐 광주 지회장과 버스 기사 등 2명이 사망했다.

25일 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방향으로 주행하던 관광버스 유리창으로 트

럭 바위가 날아와 운전자와 승객을 덮쳤다. 이 사고로 광주지회장 A(60)씨와 운전기사 B(61)씨가 숨졌다. 다른 승객 2명이 중상, 10여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버스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국사진작가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 회원 37명이 타고 있었다. /김대진 기자 kd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Card **은행**  
VISA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1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문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문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